

특집논문 공간의 전유

‘축제적 전유’를 통한 공공공간의 재구성
핀란드 ‘레스토랑 데이’를 사례로

Rebuilding Public Space through Festive Appropriation:
A case study of ‘Restaurant Day’ in Finland

한윤애*

본 연구는 통제와 규율을 내재한 공공공간을 해체하고 새롭게 재구성하는 실천적 공간 전략으로서 ‘축제적 전유’가 지니는 가능성을 검토한다. 연구에서 핀란드 헬싱키의 사례 지역은 선별과 배제를 통해 공중을 여과시킨 공공공간으로 나타난다. 특히 먹는 행위와 관련된 규제는 공공공간과 그곳에서의 삶 도처에 작용하는 권력의 매개를 반영한다. ‘레스토랑 데이(Restaurant Day)’는 여과된 공공공간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형태의 축제로 공간적 규율에 문제를 제기한 사례이다. 공공공간에서의 공공성과 이를 매개하는 권력, 권력을 해체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전유에 관한 논의는 축제적 전유로부터 실천적 함의를 이끌어내는 본 연구의 이론적 기반이다. 연구에서 먼저, 지배적 권력이 투영되는 일상적 공공공간과 레스토랑 데이의 축제적 전유를 통해 해체·재구성되는 비일상적 공공공간을 대비시킨다. 대비로부터 첫째, 국가, 관료, 개인이 어떻게 기호, 시선, 법제를 동원해 공공공간에 어울리는 신체와 행위를 선별하고 그렇지 못한 이들을 배제하는지 드러낸다. 둘째, 엄격한 규제에 대한 시위적 성격으로 출발한 레스토랑 데이가 특유의 축제성으로 다수 참여자의 행동을 확보하면서, 어떻게 공공공간의 질서를 일시적으로 전복시키는지 파악한다. 또한 질서가 전복된 순간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틈새에서 어떤 대안적 관계와 정체성이 발현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복원되는 공공성은 축제적 전유의 성과이다. 이 성과는 다양한 공간 기획으로부터 공공성이 침식되고 있는 도시에서 공간적 실천을 통해 공공공간을 능동적으로 개척할 수 있음을 상기시킴으로써 도시민의 상상과 행위를 촉구한다.

주요어: 공공공간, 축제적 전유, 레스토랑 데이(Restaurant Day)

*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석사과정(yoonai.han@gmail.com)

1. 서론

2011년 5월 21일, 핀란드에서는 45개의 허가 받지 않은 일일 노점이 각기 다른 도시공간을 점유했다. 점유는 공공공간과 도시에서의 삶에 일상적으로 부과된 엄격한 규율에 대항하는 일종의 평화로운 시위였으며 참여자는 대부분 전문 노점상이 아닌 일반인이었다. 이후 세계 다른 도시들에서 시위적 의미에 동참하거나 축제적 분위기에 동조하는 이들의 참여가 이어졌고 이는 1년에 4회, 누구나 어디에서든 일일 노점을 운영할 수 있다는 ‘레스토랑 데이(Restaurant Day, [ravintolapäivä])’로 자리 잡았다.

이 연구는 레스토랑 데이 사례를 공공공간 논의에 위치시킴으로써 공공성은 공간의 물리적 존재 혹은 그를 기획한 권력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며 능동적 실천을 통해 얻어낼 수 있음을 강조하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연구는 도시 공공공간의 공공성을 이미 주어진 정적인 것으로 보는 인식에 대한 문제 제기로부터 출발한다. 이를 간과한 채 눈에 보이는 공공공간의 평화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면 오늘날 여러 형태의 침식적인 도시 구조 재편에서 발생하는 공공성의 축소를 방관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공간에 투영된 지배적 가치와 이를 공고히 하는 도시계획적 기호, 법제적 장치, 이질적 타자를 시야 밖으로 추방하는 행태로부터 권력의 매개를 드러낸다. 이를 드러냄으로써 공공공간에서 지배하는 것과 지배받는 것 간 발생하는 동학을 포착할 수 있다. 나아가 연구는 그 구분을 흐리면서 일어나는 ‘축제적 점유’가 대안적 공간 실천 전략으로서 지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사례에서 축제적 점유가 일어나는 배경이 되는 핀란드 헬싱키의 도시공간은 위에서 언급한 지배적 권력의 매개가 시선, 기호, 규제의 형태로 내재된 곳으로 나타난다. 특히 연구에서는 ‘공공공간에서 먹는 행위’에 관련된 규율로부터 이를 확인한다. 규율이 재현한 구체적 공간으로 헬싱키의 주요한 도시공간을 파악한다. 특히 사례지로 상술할 두 공원(‘카르후푸이스토’와 ‘에스플라나디’)은 레스토랑 데이에 가장 많은 일일 노점이

나타나는 활발한 비일상적 공간 전유의 현장이다. 두 공간에서 권력의 매개는 각기 다른 기제로 투영되지만, 레스토랑 데이의 축제적 전유 행위는 두 공공공간의 질서를 유사한 방식으로 해체한다. 나아가 사례지의 관찰로부터 본 연구는 질서가 해체된 틈에서 발견되는 대안적 공공공간 활동들을 포착함으로써 해체 행위가 지니는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연구는 기본적으로 2014년 8월과 2012년 8월, 헬싱키에서 총 47일간 체류하며 주요한 공공공간을 답사하고 그곳에서의 행위를 관찰한 결과에 기반하고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일상적 시각자료와 인터뷰로 일상사를 기술하는 Latham(2003)의 방법론을 준용하였다. 도시공간의 평시 모습은 주요한 공공공간을 45일 동안 하루 평균 3시간가량 답사하며 관찰하였다. 나머지 2일은 6번째 레스토랑 데이(2012년 8월 19일)와 14번째 레스토랑 데이(2014년 8월 17일)이다. 첫 번째 방문(2012년)에서는 약 6시간 동안 헬싱키 도심부에 설치된 일일 노점을 두루 관찰하였다. 두 번째 방문(2014년)에서는 연구자가 직접 일일 노점을 운영하며 26개의 다른 노점 및 소비자를 관찰하고(오전 10시~오후 2시, 카르후푸이스토) 소비자로 참여해 53개의 노점 및 소비자를 관찰했으며(오후 3시~오후 5시, 에스플라나디), 기타 주요한 공공공간의 모습을(오후 6시~오후 11시)을 파악했다. 관찰 내용은 사진과 일지로 기록하였고 10명의 소비자 및 9명의 노점 참여자와, 3명의 지역 연구자와 일상적 인터뷰로부터 얻은 정보를 참고했다. 현장 답사와 직접 관찰로 얻기 어려운 정보는 문헌 자료로 구득해 정리하였다.

2. 이론적 기반과 본 연구의 접근

1) 여과된 공공공간과 해체의 필요성

오늘날 여러 도시들이 공간 구조를 재편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공공

공간(public space), 열린 공간(open space)에 대한 도시계획적 강조를 흔히 찾을 수 있다. 도심 공원 확충, 플라자 건설, 기개발지 재생의 청사진에서 공공공간은 여가 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삶을 가능케 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구로 묘사된다. 공공공간의 물리적 존재가 공공성을 필연적으로 보장하는지는 의문스러운 일이지만, 의문은 공공공간에 대한 더욱 본질적인 질문 제기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공중(public)이 세심하게 기획된 공공공간 위에서 부여받은 수동적 객체의 지위를 벗어나 공간을 능동적으로 재구성하는 주체로 행위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생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공공간(public space)－공중(public)－공공성(publicity)의 동학에 관한 논의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이는 ‘공공공간’이라는 단어가 야기하는 중립적인 이미지의 이면에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하는, 정교하게 고안된 공공성 논리와 공중의 행위를 매개하는 권력이 작동함을 드러내고자 함이다(Mitchell, 2003: 73). 공공공간은 그 목적을 막론하고, 고안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그곳에 어떤 공중을 허용할 것인지의 의도를 내포한다(Mitchell, 1995). 그곳에 존재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중은 조심스럽게 선별되며 도시의 광경(spectacle)은 적합한 신체와 행태를 지닌 혹은 자격을 갖춘, 선별된 공중에게 보여지는 것으로 철저히 기획된다(Mitchell, 1995).

기획이나 선별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공공공간에 무언가를 드러내는 기획은 동시에 무언가는 보이지 않게 하는 작업이다. 그곳을 누구에게 허용할 것인가의 선별 역시 금지와 배제를 전제로 한다. 기획·선별 작업에서 공공공간은 무결점의 동질적 공중에 대한 환상으로 채워지는 한편, 금지·배제 작업에서 도시민의 이질성은 여과를 거쳐 제거된다(Crilly, 1993: 154; Mitchell, 1995). 대표적으로 거리노숙인, 약물 남용자, 빈민, 이주자의 신체와 행위는 공공공간에 존재하기에 부적절한 것, 사회가 건강치 못하다는 지표, 전염 가능한 불건전함으로 구분지어져 그 노출이 축소되며 이들은 최소화된 공간으로 내몰린다(김준호, 2011; Low

et al., 2005; Mitchell, 1995).

이들을 내몰며 공공공간을 ‘합리화(rationalize)’하는 권력의 매개는 공간적으로 직선적 절단과 분할, 제도적으로 통제와 감시를 통해 일어나며 기호나 이미지, 법제에 투영된다(르페브르, 2011: 259; Mitchell, 1995). 그 지배를 받는 공간은 살균처리 되어 ‘텅 비어’ 있고, 이질적 신체에는 호의적이지 않은 ‘단한’ 환경을 조성한다(르페브르, 2011: 259; Low et al., 2005). 그렇기에 평온해 보이는 공공공간도 수많은 성적, 계급적, 인종적 배제를 거친, 정치적 통제와 지배의 상징을 재현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Fraser, 1990: 59; Hou, 2010: 4; Low, 2010: 50). 단한 공공공간의 배타성은 노골적 풋말이나 (거리노숙인이) 눕지 못하게 설계된 벤치를 통해 드러나기도 하지만, ‘광장’ ‘시민의’ ‘열린’과 같은 명명이나 녹지, 정원, 분수와 같은 걸보기에는 개방적인 기호에 의해 숨겨지기도 한다.

이는 공공공간을 규율해온 권력의 매개를 해체할 필요성이 나타나는 지점이다. 해체는 공공공간을 물리적 경계와 구성물로 바라보는 데에 그치지 않고 역동적인 재구성의 과정으로 이끌어내는 행위다. 해체 작업은 공공공간이 지칭하는 사회적 연결, 정치적 제도와 관습의 포착으로부터 시작된다(Lefebvre, 1991: 225~226). 가령 한국과 넓게는 동아시아 맥락에서 이것은 유희적 가치, 개인의 삶에 부과된 국가적·가족적 의무로 나타난다(Hou, 2010: 4~5). 여기서 “공공공간은 전통적으로 부재했거나 국가에 의해 강력히 통제되는 공간과 동의어로 사용”되었으며, 광장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공공공간 또한 도시민을 길들이고 관리하는 공간으로 기능해왔다(황진태, 2011a; Hou, 2010: 4~5). 국가 혹은 동질적 다수 집단의 지배적 가치가 투영된 우리의 공공공간에서 도시민을 공간 정치의 주체로 이끌어내려는 실천적 대응이 모색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공간 재편에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도시 공공성의 후퇴 혹은 상실에 대한 우려와 맞닿아 있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나 공공성 상실에 대한 우려와 다른 가능성의 제안, 권력의 매개가 제거된 ‘날것’으로서 공공공간을 보는 작업, 대안적인 공간 생산 움직임

임의 포착은 고무적이다(김동완, 2014; 윤지환, 2011; Brenner, 2013; Harvey, 2012: 67; Hou, 2010). 동시에 우려와 대안 모색은 공공공간의 생존능력이 극단적으로 위협받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관련 논의에서 그리스 아고라를 매개되지 않은 공공공간의 이상으로 보는 것은 그곳에서 사회적 관점과 경험, 지향이 다른 타자들과의 마주침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Hartley, 1992: 30; Young, 1986). 최근 그런 마주침이 축소되는 것과 관련해 하비는 “태초엔 도덕적이었을” 공간에 대한 향수를 경계하는 동시에, 도시 공공성의 후퇴가 영토적 자본, 공간적 규율이나 감시의 침식적 확장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한다(Harvey, 2012: 67~68). 다음으로는 침식되는 공공성의 복원을 바탕으로 공공공간을 재구성할 실천적 전략으로 본 연구가 주목하는 ‘축제적 전유’와 그 기반이 되는 개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실천적 공간 전략으로서 ‘축제적 전유’

공공공간은 본질적으로 통제의 속성을 지니는 권력과 그에 의해 통제되는 이질적인 자들 간 경합을 담고 있으며 여기서 공공성은 끊임없이 구성되고 해체되는 과정에 놓인다(Low, 2010: 101). 그 과정에서 공공공간의 이상은 한 번도 당연한 것으로 보장된 적이 없었다(Mitchell, 2003: 5). 공공공간을 권력화하려는 세력과 이를 탈환하려는 이들 간 경합은 사회 운동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어왔으며, 한국의 경우 2000년대 이후에 특히 경합이 본격화되었다(황진태, 2011a). 그러한 공공공간의 정치적 과정에서 ‘공중’의 폭은 영토적 투쟁을 통해 (적어도 형식적으로라도) 확대되어왔다(Mitchell, 1995). 도시공간의 공공성을 둘러싼 경합이 고도로 치열해지는 최근의 모습은 도시 인구와 문화 이질성의 확대를 반영하고 있다. 공공공간이 도시에서의 사회적 관계와 정체성을 반영하는 장이라면, 다양화된 사회에서의 “대안적 정체성과 관계 또한 공공공간에서 태동하고 발현되어야” 하며, 그 가능성은 다방면에서의 공간적 실천을 통

해 모색할 수 있다(Hanatt and Strong, 2011: 35; Hou, 2010: 14).

가능성을 찾는 작업은 공적 영역에서 차이를 허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권력화된 공공공간은 공중과 그들 행위의 동질화를 추동하는 한편, 그 주변부에서는 동질화에 대한 저항으로 차이와 이질적인 것이 시작된다(르페브르, 2011: 530). 가령, 금지된 장난이 행해지는 공간이나 좁고 활기찬 뒷골목은 그 이질성을 구체화하는 장이 되곤 한다(르페브르, 2011: 530~531; Hou, 2010: 5). 이 움직임들은 공간을 전유함으로써 ‘지배를 지배’하는 것으로 나아가기도 한다(르페브르, 2011: 259, 498). 이를 다룬 경험적 연구가 주로 신자유주의적 공간 재편에 맞선 계급투쟁, 정치적, 성적, 인종적 투쟁을 사례로 하는 것은 공공공간에서 가장 빈번하고 극단적으로 배제되어온 타자가 누구인지 고려할 때 이례적인 것이 아니다. 이 투쟁들은 공간 전유를 매개로 억압적 권력의 위계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뚜렷한 단일의 지향을 지닌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지향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투쟁 참여자의 한정된 폭과 이들이 지닌 또 다른 동질성은 본의 아니게 ‘지배를 지배’하는 일을 요원해 보이게 만들기도 한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축제적 전유’는 다층의 이질적 주체를 점진적으로 포함시켜 공공공간을 광범위한 해체와 재구성의 장으로 이끄는 전략이다. 축제의 유희성과 낮은 진입장벽은 평소 자원의 부족과 산발성으로 공간적 실천에 참여하지 못했던 이들을 즉흥적이고 개방적인 방식으로 참여시킨다. 이는 선별된 공중에 한정되었던 상호작용을 증폭시키고 타자 지각의 외연을 확장하며, 공간에 재현된 헤게모니를 일시적으로 전복한다(Eliade, 1996: 359; Low, 2010: 181; Newman, 2000: 22). 축제는 공간을 물리적으로 변화시키지도, 통일된 지향을 지니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축제는 공간을 급진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어떤 거대 인프라나 투자도 요하지 않기에, 크고 작은 개인과 집단을 쉽게 동원해 ‘작지만 거대한 공공공간(smaller yet grander public space)’을 창조한다(Hou, 2010: 10). 이로부터 본 연구는 동질한 것으로 상상되는 공중과 중립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공공공

간 개념에 도전하고, 도시공간에 새로운 기능과 의미를 부여하는 실천 전략으로 축제적 전유를 제안한다. 축제적 전유 행위의 결실은 우리의 도시공간에 ‘대안적인 집합의 영역(위의 책)’을 제시하고 끊임없는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대안적 집합 영역의 가능성은 여러 형태로 상상되어 왔다. 위의 문제 의식을 공유하는 논의에서는 ‘열린 도시(open city)’ 접근이 공공공간의 물리적 개방성에 치중한 나머지 ‘공간 생산 방식에 대한 민주적 통제’로 나아가지 못함을 지적하면서, 또는 대안적 공간 생산 움직임이 ‘공간물신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면서 ‘도시에 대한 권리(right to the city)’ 접근을 제안한다(황진태, 2011a, Brenner, 2013; Mitchell, 2003: 232~236). 도시공간의 끊임없는 ‘풀뿌리 전유와 재전유’를 통해 도시 거버넌스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도시공간을 민주적으로 재구성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다(Brenner, 2013; Lefebvre, 1991: 128, 280).

또 다른 대안적 가능성은 ‘도시 공유물(urban commons)’ 논의에서 나타난다(Harvey, 2012: 72). 도시 공유물 접근은 국가 지출로 생산되는 공공재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도시민의 행위와 상상도 가능케 한다(위의 책: 73~74). 하비는 공유의 사회적 실천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설령 실천이 결과적으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으로 연결된다고(예를 들어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농장에서 재배된 산물을 판매한다고) 해도, 도시민의 실천적 행위가 개척한 공유의 장으로서 공공공간은 국가가 생산하는 그것과 명확히 구분된다고 보았다(위의 책: 74). 도시 공유물, 도시에 대한 권리 접근은 축제적 전유의 가능성에 초점 맞추고 있는 본 연구에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지만, 공공공간을 대안적으로 재구성할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정에 근본적인 지향을 제시해준다. 다음으로 해체 행위를 통해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성과와 그 함의를 살펴본다.

3) 전유의 성과: 공중의 확대와 공공공간의 재구성

앞에서 일상적 공공공간에 작용하는 권력의 매개와 그것을 해체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가능한 실천 전략으로 축제적 전유의 잠재력에 주목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공공공간의 정치에서 취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실천 전략 중에 먹는 행위의 축제가 어떻게 권력의 매개를 겹겹이 포장하고 있던 질서를 일시적으로 무력화하고, 공공공간을 탈영토적인 공간으로 재구성하는지 보고자 한다. 이에 있어서 특히 헬싱키의 일상적 도시공간을 비일상적으로 전유하는 레스토랑 데이 참여자들이 평소 규제나 사회적 관계에 의한 배제에 취약한 이들을 포함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혼돈과 흐려진 경계는 일상에서 보이지 않거나 혹은 보이지 않게 처리된 이질적 타자가 공공공간의 주체로 거듭나게 되는 기반이 된다. 이주자, 거리노숙인, 다원적 젠더의 배제 문제는 공공공간 논의에서 폭넓게 다루어져 왔다(김준호, 2011; 황진태, 2011b; Domosh, 2011: 118~119). 이와 같은 ‘복수의 정체성’은 공간을 점유하며 일어나는 다수의 기존 사회운동에서 종종 발생하는 영역화와 ‘단일 정체성’의 요구로 인해 침묵을 강요받기도 했다(황진태, 2011b). 공공공간의 정치에 참여하는 공중의 폭의 확장 가능성에 주목한다면 레스토랑 데이가 취하는 공간 전략의 독특성은, 그것이 ‘누구나 어디에서든’ 먹는 행위의 축제로 공간을 점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복수의 정체성에 도시공간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한다는 점에 있다.

복수 정체성이 공공공간의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공중의 폭이 넓어졌을 때에 기대할 수 있는 궁극적인 성과는 공공성의 복원이다. ‘복원’이라 표현하는 것은 최근의 도시공간 재편에 수반되는 선별과 배제의 작업이 공공공간에 배태되어야 할 공공성의 상실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보는 본 연구의 시각과 관련된다. 사례지를 포함한 오늘날 여러 도시의 공공공간은 각기 다른 맥락에서 다양한 장치를 동원해 권력의 매개를 공간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이들 공간은 그 지리적·역사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존재할 수 있는 공중과 행위를 동질화시켰다는 점에서 유사하게 ‘비어있는’ 공간이다(김동완, 2014; 르페브르, 2011: 259). 그렇기 때문에 도시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유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권력화된 공간이 해체되는 방식과 성과 또한 유사하다. 그 성과는 타자화되었던 공중의 주체화와 상실되었던 공공성의 복원이며, 여과되지 않은 공공성에 기반을 둔 공공공간의 재구성이다.

공공공간에서 도시민이 주변화되는 기제는 본 연구의 사례지에서만 특수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이에 대항하는 사회적 움직임의 성과 또한 특정 공간을 벗어난다고 하여 감소하지 않는다. 공공공간의 축제적 전유가 공공성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살펴보는 작업은 최근 점차 더욱 치열한 경합이 가시화되는 한국의 공공공간에 대한 논의 및 도시 공공성 회복을 위한 실천적 대안 모색에 함의를 주는 것이기도 하다(황진태, 2011a; Lee et al., 2010). 대안 모색에서, 고정적인 공간을 이용해온 전통적 사회운동에 비해 최근의 사회운동이 미디어를 도시공간 전유의 기폭제로 활용하며 유연하고 산발적인 공간 전략은 구사할 수 있게 된 것은 주지할만한 성과이다(백옥인, 2008; Lee et al., 2010). 본 연구는 레스토랑 데이를 다양한 도시공간을 동시에 유연하게 전유할 수 있게 된 사회 움직임의 사례로 포착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오늘날 위협받는 공공성과 공공공간의 축소에 대응하는 하나의 대안적 공공공간 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규율된 공공공간과 규율의 부재에 대한 상상

지금까지 공공공간의 권력화와 이를 해체하는 전략에 관한 논의를 다루면서 축제적 전유의 가능성과 잠재적 성과를 검토했다.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 사례인 핀란드 ‘레스토랑 데이’에서 축제적 전유가 어떻게 공중

<그림 1> 사례 지역: 카르후푸이스토(위)와 에스플라나디(아래)



자료: Google Earth에서 연구자가 편집.

을 확대하고 공공성을 복원하며 공공공간의 재구성으로 나아갔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로써 선별과 배제의 작업이 일상적으로 내재된 공공공간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타자의 신체와 행위가 축제적 전유를 통해 공공공간의 주제로 드러나는 과정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다음 부분에서 구체적 행위를 다루기에 앞서, 먼저 기호와 제도적 규제와 시선으로 공공공간에서 재현되는 지배적 권력의 매개가 핀란드 헬싱키 두 사례지의 일상을 어떻게 통제해왔는지 파악할 것이다.

1) 살균된 공공공간과 배제된 타자들

레스토랑 데이에 헬싱키의 공공공간은 평시의 공간과 전혀 다른 공중과 행위, 질서로 구성된다. 이는 헬싱키의 도시공간 전반에 적용되지만 연구에서는, 특히 매개된 공공공간과 매개가 일시적으로 해체된 공공공간의 모습이 두드러지게 대조되는 두 공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여기서 헬싱키 도심부의 카르후푸이스토(Karhupuisto)와 에스플라나디(Esplanadi) 두 공원(<그림 1>)은 여러 제약과 장치를 통해 ‘부적절하고’ ‘낮선’ 신체와 행위를 세심하게 배제한 공간, 그리고 도시민에게 기획된 도시 광경을 관람하는 수동적 공중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활발한 소통

과 마주침을 제한한 공간을 대표한다.

첫 번째로 카르후푸이스토(Karhupuisto: 공원에 설치된 곰 조각상을 본따 ‘곰[karhu] 공원[puisto]’이라 이름붙인 것이다)는 헬싱키 핏카실타(Pitkäsilta) 다리 북쪽에 위치한 공원이다. 헬싱키 도심은 역사적으로 부르주아 계급을 대표해온 다리 남쪽과 노동자 계급을 대표해온 다리 북쪽으로 구분된다(Paunonen et al., 2009; Tani, 2001). 전통적인 노동자 지구였던 사례지는 가난, 범죄, 밀매, 성매매의 중심지로 평판을 지녔다. 핀란드에서 주류 판매가 통제되었던 1919~1932년, 이곳 ‘노동자들의 무분별한 음주’는 특히 혼욕과 교화의 대상이었다(Paunonen et al., 2009). 노동자 지구로서 이곳의 상징성은 노동자를 모델로 조각한 인근 교회 제대, 좁고 천장이 낮은 노동자 주택 전형을 간직한 이곳의 박물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역 공원인 카르후푸이스토는 과거, 평일 저녁이나 주말이면 ‘헬싱키 노동자 문화의 전형’을 볼 수 있는 곳이었다. 이곳은 인근 축구장에서 경기를 끝낸 이들, 저렴한 맥줏집에서 모임을 마친 이들이 서로 마주치고 소통하는 곳으로 기능했다.

최근에는 이 지역에서 그런 마주침을 찾아보기 어려워졌다는 것이 지역민들의 의견이다. 당시 공원에서 볼 수 있었던 ‘밤늦게까지 어슬렁거리고’ ‘무료 배식을 받거나’ ‘거리에서 자도 이상하지 않을’ 이들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도시 북쪽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는 200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이 지역에 비교적 젊고 학력이 높은 중산층이 유입된 것과 관련된다. 헬싱키 중심부와의 인접성과 한때 노동자 지구로서 가졌던 ‘자유분방하고 낭만적인 분위기’는 인구 증가와 내외적 도시 확장이 일어나는 헬싱키에서 주거지로서 이 지역의 매력을 더했다(Tani, 2001). 이어서 근린지역 고급화와 주택가격 상승이 따랐으며 공원의 주요 이용자도 변화했다(Akkila, 2012). 이것이 공원에서 가시적 변화로 드러난 것은 최근이다. 여전히 카르후푸이스토에 ‘어슬렁거리는’ ‘취객과 줌도둑’이 탐탁지 않았던 일부 지역민들은 시 정부의 지원을 받아 벤치와 휴식 공간을 화려한 정원으로 대체했다(<그림 2>). 2009년 당시 정원화 작업에는 경찰

<그림 2> 정원과 녹지로 정비된 카르후푸이스토 공원



<그림 3> 카르후푸이스토 정원화 작업을 묘사한 지역신문. 꽃을 뿌리는 ‘대모’와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지?(... and where can WE go?)”라고 묻는 취객이 있다.



자료: EveryDaily, 2009.

악단 연주와 지역민으로 구성된 “카르후푸이스토의 대부모(Godparents)”가 함께했다 (<그림 3>)(EveryDaily, 2009).

다음으로, 두 번째 사례인 에스플라나디(Esplanadi)는 핏카실타 다리 남쪽, 헬싱키의 심장부에 위치한 대표적인 도심 공원이다(<그림 4>). 공원은 잘 관리된 녹지와 분수, 핀란드에 대한 조국애를 형상화한 시인 요한 뤼네베르크 조각상, 가지런히 놓인 벤치로 구성되어 있다. 에스플라나디를 둘러싸고 있는

웅장한 19세기 건물들의 1층에는 고가의 브랜드 상점과 유명 레스토랑, 카페가 입점해 있고 이를 다시 극장, 호텔, 백화점과 고급 주택가가 둘러

<그림 4> 19세기 초반의 에스플라나디와 오늘날(2012년) 에스플라나디



싸고 있다. 에스플라나디 공원이 거대한 직선 가로와 가로수로 구성된 ‘파리 스타일’ 공원으로 설계될 1830년대 당시, 이곳은 스웨덴어, 핀란드어,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새로운 자본가 계급을 위한 ‘정제된 여가 공간’으로 고안되었다(Paunonen et al., 2009)(<그림 4>). 공원은 당대 헬싱키 자본주의의 성장과 부르주아 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곳위의 글이었으며, 현재에도 에스플라나디의 직선 형태의 산책로는 인근 고가 레스토랑과 카페의 야외 공연 무대, 상징적인 핀란드 디자인 브랜드의 패션쇼 무대, 국가와 시정부의 야외 행사 무대로 기능하며 정제된 여가 공간의 광경(spectacle)으로 기획되고 수동적으로 소비된다. 19세기에 비해 현재 공원의 계급적, 인종적 접근성이 퇴보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공원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약 30만 명(도시 인구의 약 6%)에 달하는 이주자와 다양한 인종, 젠더, 연령대의 도시민을 대표하지 않는다. 이는 후에 상술할 레스토랑 테이의 공원의 모습과는 대비되는 것이다.

카르후푸이스토와 에스플라나디 두 공원은 모두 헬싱키의 대표적 공공공간이다. 두 공원을 물리적 개방성, 접근성, 녹지, 여가생활 가능성으로 평가한다면 손색이 없어 보이기 쉬우며, 심지어 카르후푸이스토의 최근 변화는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정원’을 가꾼 우수 사례로 보일 수도 있다. 반면 두 공원을 공공성, 타자와 마주침을 가능케 하

는 공공공간 관점에서 보면 평가는 달라진다. 가령, 유사한 문제의식에서 도시공간 재편에 접근할 때 뉴욕의 하이 레인(High Lane) 사례는 열린 공공공간의 실현이라는 도시계획가들의 외침과 달리 도시공간을 공유할 가능성을 극단적으로 감소시켰다고 평가받는다(Brenner, 2013; Harvey, 2012: 75). 오스만의 파리 정비 또한 당대 자본 흐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도시구조 재편으로서 계급적으로 낮은 이와의 마주침을 축소시킨 사례로 인용된다(Harvey 2006: 22~25, Sennett 1978: 145~146). 카르후푸이스토는 그곳에 어울리지 않는 공중을 ‘살균’한 공간이라는 점, 에스플라나디는 선별된 공중을 위한 정제된 공간으로 기획되어 여전히 수동적으로 소비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이를 유사하게 마주침과 소통을 제한한 공공공간의 사례로 위치시키고 있다.

2) 주변부로부터 시작되는 대안적 공공공간 상상

핀란드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먹는 행위, 공공공간 사용에 대한 인식과 이를 반영한 규제를 보면 최근 규제에 대한 반발이 수면 위로 제기된 것이 놀랍지 않다. 20세기 초 핀란드는 스웨덴과 소련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 국가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체성 확립을 필요로 했다(Boyer and Hill, 2012). 당시 절제(temperance)와 건실함(sober), 도덕적임(moral), 애국(patriotic)이 핀란드인 정체성의 이상으로 추구되면서 이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와 신체를 통제하고 훈육하는 장치가 발달했다. 술집과 거리 음식은 무절제와 비위생의 온상으로 여겨졌으며, 특히 노동자 계급의 음주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시와 인도의 대상이 되었다(위의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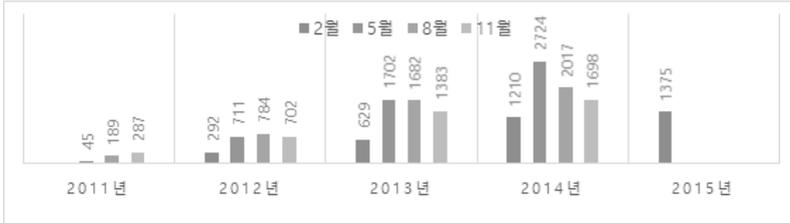
통제와 훈육의 장치들은 오늘날 제도와 기호로 정착해 도시공간을 규율한다. 사례 연구에서 초점 맞추고 있는 ‘먹는 행위’와 관련해서는 핀란드의 엄격한 공중위생 규제가 이를 반영한다(Forbes, 2014.8.13). 헬싱키 도시공간에서 음식을 판매할 수 있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공간이용, 위생관리, 안전관리, 주류관리, 환경관리, 사업신고와 관련해 최소 8가지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허가과 자격을 인증 받는 방법이 첫 번째, 노점상이 되는 것이 두 번째 방법이다(Boyer and Hill, 2012). 전자는 요식업 종사자가 일반 음식점을 여는 경우에 해당한다. 후자는 시정부가 허가한 지점에 설치된 소수의 균일한 철제 노점에서 허가된 종류의 음식('grilli'라는 핫도그 류가 대표적이다)만을 판매하는 경우이다(위의 글).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 음식 판매 행위는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형성된 공공공간에서 먹고 마시는 행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현재의 엄격한 요식업 및 노점 관리 규정은 헬싱키에서 거리 음식 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다.

레스토랑 테이를 처음 상상하고 실현한 핀란드인 티모 산탈라(Timo Santala)가 운영하고자 했던 '이동 가능한 자전거 노점'은 위 범주와 거리가 먼 것으로 "핀란드에서는 이와 관련된 인허가를 받아낼 길이 전혀 없었다(TED×Turku 영상 자료, 2013년 게시)."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해 그가 궁극적으로 제기한 문제는 핀란드 도시 공공공간 전반에서 개인의 삶에 가해지는 강도 높은 통제와 규율에 관한 것이었다. "공공공간은 사람들에게 속하며" "우리의 행위를 통해 세상을 만들어가지만" 현재의 도시공간과 삶을 통제하는 규율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위의 영상). 산탈라가 이 문제의식을 레스토랑 테이라는 축제 형식으로 점화시킨 까닭은, 그가 공공공간에서의 공공성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 사람들의 행위의 중요성을 인식했지만 동시에 이슈가 전통적 방식의 시위로 해결되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공공공간에서의 행위를 매개하는 권력(산탈라는 '관료주의'로 표현했다)에 대항하기 위해 그가 대신 사용한 전략은 도시공간의 질서를 일시적으로 전복시킴으로써 긍정적인 대안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는 소셜 미디어와 지인들을 통해 참여자들을 모집했고(Forbes, 2014.8.13), 2011년 5월 21일 첫 번째 레스토랑 테이에는 음식을 판매하거나 나누는 45개 노점이 참여했다. 이후 레스토랑 테이의 시위적 의미에 동참하거나 축제적 분위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참여가 다른 여러 도시들에서 뒤따랐다. 오늘날

<그림 5> 레스토랑 데이에 참가한 ‘일일 노점’의 수(2011년 5월~2015년 2월)



자료: 레스토랑 데이 홈페이지 자료로부터 재구성, www.restaurantday.org.

레스토랑 데이는 연 4회, 세계적으로 35개국 2,724개(2014년 5월 기준)의 ‘일일 노점’이 참여하는 규모로 성장했다(<그림 5> 참조). 소수의 일반인이 시작한 축제가 5년 여 만에 이와 같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힘입은 부분이 크다. 이는 2000년대 이후 도시공간을 동시다발적으로 활용하게 된 공간적 사회운동에 대한 연구에서 유사하게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백옥인, 2008; Lee et al., 2010). 이로부터 레스토랑 데이는 풀뿌리 도시공간 전유로 시작하여 특유의 축제성과 즉각적 미디어 활용을 기반으로 외연을 확장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대안적 공간에 대한 상상이 구체적인 실천 행위를 통해 어떻게 공공공간을 재구성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4. 매개가 해체된 공공공간에서 발현되는 대안적 가능성

앞에서 공공공간에 다양한 형태로 내재된 권력의 매개를 이론적으로 검토한 후, 매개된 공공공간에서 발생하는 배제와 공공성의 축소를 지역의 사례에서 구체화하고 그 주변부로부터 대안적 공공공간에 대한 상상이 시작되었음을 확인했다. 사례지로 선정한 두 공원은 선별과 배제를 기반으로 고안된 공간, 규율과 훈육이 일상화된 공공공간을 대변한다. 다음으로 헬싱키의 일상적 공공공간과 대비해 레스토랑 데이의 공공공

간의 모습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평소 공공공간에서의 신체와 행위를 조밀하게 매개하고 있던 질서가 축제적 분위기에서 어떻게 해체되는지, 또 해체와 동시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틈에서 어떤 대안적 활동과 정체성이 발현되는지 확인한다. 이로부터 본 연구는 축제적 전유가 지나는 공공공간 재구성의 가능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1) 축제적으로 전유된 공공공간: 매개의 정지와 차이의 시작

레스토랑 데이의 카르후푸이스토, 에스플라나디는 물리적으로 평소와 동일한 공간이지만 다양한 참여자의 이질적 행위를 통해 일시적으로 다른 의미와 기능을 부여 받는, 질적으로 상이한 공간이다. 사례에서 축제적 도시공간 전유의 주를 이루는 노점 행위는 앞에서 살펴본 엄격한 공공공간 및 노점 관련 규제들이 통제하고자 하는 대상이고 먹고 마시는 행위 또한 역사적으로 헬싱키의 공적 공간에서 훈육과 교화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규제와 훈육이 만들어낸 공공공간의 질서가 레스토랑 데이에 일시적으로 해체될 수 있었던 것은 결정적으로 다수 도시민이 ‘그들의 뒷골목’이 아닌 주요 도시공간을 가시적으로 차지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보고 있다.

2014년 8월의 레스토랑 데이에 카르후푸이스토에서는 27개의 일일 노점이, 에스플라나디에서는 약 53개의 노점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공간을 차지한 것이 관찰되었다. 앞선 2012년 8월의 관찰과 비교해 2014년 레스토랑 데이에 일일 노점으로 참여한 사람들의 수가 두 배 이상 증가했을 뿐 아니라(레스토랑 데이 홈페이지) 참여자의 인종적 다양성과 행위적 역동성이 가시적으로 증가했다. 참여자가 양적으로 증가한 데에는 일부 전문적인 요식업 종사자의 참여도 포함되었지만, 이들은 두 사례지의 약 80여 개의 노점에서 열 개 중 한 개 노점 미만의 비율로 관찰되었으며 여전히 대다수의 참여자는 레스토랑 데이 당일에 유희적 목적으로 참여한 일반인이었다. 그 비율과 전문적·비전문적 노점 간 유사한 음식 판매

<그림 6> 에스플라나디 일일 노점의 구성(판매 음식 기준)



자료: 2014년 8월 17일 연구자가 관찰한 내용을 시작자료로 기록.

주기로 볼 때 전문 요식업 종사자의 참여가 일반인들 참여의 자율성을 훼손하거나 위축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평소 산책, 휴식, 야외 공연, 시정부 공식 행사와 수동적 행사 감상이 지배적이었던 에스플라나디에 다양한 도시민들, 특히 2세대 및 1세대 이주자들이 공공공간의 행위의 능동적 주체로 참여했다. 판매 음식을 기준으로 53개 노점 중 30개 노점이 아시아, 15개 노점이 핀란드, 4개 노점이 아프리카, 2개 노점이 다른 유럽, 2개 노점이 라틴 아메리카 노점들로 구성되었다(<그림 6> 참조). 답사와 일상적 인터뷰로부터 거의 모든 이주자 및 외국인 참여자들은 모국의 음식을 판매함을 확인하였다. 여기서 기획되는 도시 광경(spectacle)의 감상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도시공간의 일상적 평화가 전복된 사이, 이질적 타자들은 모국의 전통적 가무, 자신의 정체성을 지칭하는 상징을 드러냈다. 축제의 기획이나 지시사항이 최소한으로 축소된 레스토랑 데이의 특성 상일일 노점 참여자들은 언급한 두 공원 외에도 무작위한 공간과 하루 중 다양한 시간대를 이용하여 도시 곳곳을 마주침의 공간으로 전유하였다(<그림 7> 참조)(Helsinki Times, 2013. 11.14).

일상적 감시와 배제가 해제된 틈을 공존의 공간으로 개척한 또 다른 타자들은 평소 유랑자, 좀도둑의 이미지를 지녀 차별에 취약하게 노출되는 ‘집시’들이었다(Ali, 1998). 일상적으로 권력화된 영역으로서의 도심 공공공간에 존재를 허용 받는 주류의 공중과는 마주칠 기회가 없었던, 보

<그림 7> 밤 11시 경 도심의 한 거리에서 라틴아메리카 출신 이주자가 모국 음식을 판매하고 있다.



<그림 8> 에스플라나디 공원의 중앙에서 집시들이 음식을 팔며 행인과 함께 춤추고 있다.



자료: 2014년 8월 17일 연구자가 촬영.

이지 않던 집시들은 레스토랑 데이에 가장 주류의 도시공간(에스플라나디 공원 중앙 등)을 향유하였다(<그림 8> 참조). 집시들에게 일상적으로 가해지는 검열적 시선이 레스토랑 데이의 축제적 분위기 속에 제거된 사이,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발과 음식, 춤과 노래를 위화감 없이 드러냈다. 일상적으로 영역 안의 공중과 영역 밖의 타자를 구분 짓던 경계가 흐려진 틈은 현지인과 외국인, 지나가던 행인 등 서로 전혀 다른 도시민들을 공공공간의 능동적 행위 주체로 끌어들이었으며 낯선 마주침을 도모했다.

한편, 축제가 일시적으로 허물어뜨린 공간적·사회적 경계는 서로에게 이질적이었던 이들 간의 비일상적 마주침을 가능케 했다. 여과된 공간이었던 카르후푸이스토에서는 현재의 지역민과 한때 지역민이었던 사람들, 더 이상 이곳에서 다수가 아닌 나이든 노동자들, 이주자들이 보이지 않았던 타자를 마침내 상호 지각했다(<그림 9> 참조). 레스토랑 데이 참여자와 지역민에 따르면 이 지역에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고 주택가격이 상승하기 이전인 2000년대 초반까지 인근 지역에서 ‘일요일이면 종종 볼 수 있었던 음식을 무상으로 나눠주는 행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헬싱키에 이주한 지 7여 년 된 이주자 가족은 마침내 ‘우리도 이제 그들이 하는 방식대로 해보려고’ 음식을 만들어 공원으로 나왔다. 한 소비자는

<그림 9> 카르후푸이스토의 일일 노점 및 소비자들



자료: 2014년 8월 17일 연구자가 촬영.

구매하려는 음식이 전문 요식업 종사자의 음식이 아닌 ‘평소 식당 메뉴에서 볼 수 없는 집에서 만든(home-made) 음식임’을 재차 확인하였고 공원을 지나던 행인은 ‘작은 참여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장 소박해 보이는 노점을 찾아 소비하기도 했다. 인근 지역 거주자는 레스토랑 테일을 자신이 ‘몰랐던 주변 이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도 했다. 규제와 배제로 구성된 평시적 공공공간의 질서가 일시적으로 해체된 공공공간은 서로에게 낯선 공중의 공존과 공존을 넘어선 중첩을 양육하는 공공의 공간이 되었다.

2) 해체가 거둔 성과: 공공공간의 재구성

레스토랑 데이 참여자들은 평상시 헬싱키의 주류 도시공간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낯선 이들’과 검열적 시선과 사회적 인식으로 여과되던 이질적 타자를 포함한다. 레스토랑 데이에 이들이 ‘보이는 주체’로 드러난 것은 공공공간에 허용되는 공중의 신체와 행위의 폭이 먹는 행위의 축제를 통해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표현으로 허용과 금지의 권력이 일시적으로 무력화된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공중의 폭 확장권력의 일시적 무력화를 형식적으로 가능케 한 것은 가장 중요하게는, 축제적 전유에 참여한 도시민들의 행위였다. 구체적으로는 먹는 행위가 지나는 축제적 성격은 도시공간의 비일상적 전유가 성공적으로 확산되

는 데에 기여했다. 1년에 4회, 24시간 미만의 전유가 나머지 오랜 시간 동안 공간에 작용해오던 매개를 일시적으로나마 해체할 수 있으려면 폭넓은 다수 도시민의 참여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참여의 방식이 크고 작은 도시공간을 동시에 점유하는 행위였다는 점에서 공통적 행위가 주는 시각적 효과 또한 축제의 급격한 확산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추가적으로 조밀한 통제 사이에 존재하는 법적, 현실적 빈 틈 또한 도시공간을 탈영역의 장으로 전유하는 데에 기여했다. 법적으로 레스토랑 테이를 처음 만든 티모 산탈라는 헬싱키 시정부의 음식점 및 노점 규제가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노점 행위에만 적용되는 점을 이용했다. 이 기준에 의하면 ‘하루 동안 모든 규제의 부재를 상상하는’ 레스토랑 테이는 법적으로 규제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아직 규제의 근거가 없는 회색 영역에 속한다(TED×Turku 영상 자료, 2013년 게시). 또 현실적으로 수백개의 소규모 가판대가 하루 중 무작위한 시간대에 동시다발적이고 즉흥적으로 다수 도시공간을 점유한 채 벌이는 노점 행위를 단속 혹은 ‘절제의 미덕으로 훈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실제로 레스토랑 테이에 헬싱키의 경찰력은 특정인의 신고에 의한 것이 아니면 노점을 단속하지 않고 있다(*The Independent*, 2012.8.10).

레스토랑 테이의 모호한 법적 지위와 단속의 현실적 제약은 헬싱키 시정부로 하여금 규제가 아닌 묵인, 나아가서는 은근한 장려로 대응하도록 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도시공간과 일상적 신체와 행위에 가해지는 규율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시작된 레스토랑 테이의 시위적 기원을 상기해볼 수 있다. 혹자에게 레스토랑 테이의 ‘평화로운 확산’은 이것이 공공공간 질서의 급진적 재편이나 배제된 타자의 해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일시적 유희에 그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례가 실천적 공간 전략으로서의 의의를 여전히 지니는 것은, 레스토랑 테이가 일상적 규율의 부재에 대한 상상으로 출발해 다층의 이질적 도시민을 점진적으로 포함함으로써, 권력의 부재를 넘어서서 도시공간의 생산 방식을 참여자의 구체적 행위로 구성해나갈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데에 있다.

<그림 10> 헬싱키
반타(Vantaa) 공항의 레스토랑
데이 참여자



<그림 11> 개인 주방의 창문을 이용해
음식을 판매하는 참여자



자료: Finland Times, 2014.8.18 및 레스토랑 데이 홈페이지.

대안적 공공공간 연구로서 레스토랑 데이 사례가 지니는 특이점은, 그것이 시위적 성격에서 시작하여 그 저변을 확대해나갔다는 데에 있다. 이 점에서 문제의식을 직설적으로 드러내는 전통적 방식의 사회운동 대신 긍정적 대안을 보이려고 했던 레스토랑 데이의 시도는 어느 정도 수확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레스토랑 데이는 오늘날 정기적 축제로 자리 잡았지만 여전히 참여 방식에 대한 기획은 최소화되어 있다. 누구도 참여자가 차지하는 공간의 범위와 종류를 한정하거나 음식이나 행위의 종류를 권유하지 않으며, 참여 자격도 존재하지 않는다(Helsinki Times, 2013.11.14). 참여자들은 레스토랑 데이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위치와 음식 메뉴를 공유하지만 홈페이지는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할 뿐이다. 일일 노점이 어느 거리나 공원에 나타날지 행인이 무엇을 먹으며 누구와 대화할지 혹은 춤을 출지는 참여자의 자율로 남아 있다.

참여 주체의 자유와 단일한 매개 권력의 부재는 공중의 범위를 확장 시킴으로써 공공공간에 공공성을 돌려놓는 데에 기여했다. 여기서 나아가 전유를 통한 매개의 해체와 대안적 기능성의 발현은 일부의 공공공간에만 한정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기획이 최소화된 특성상, 레스토랑 데이는 공원과 거리를 벗어나 사유 공간인 주차장, 개인 주방이나 테라스, 심지어 일상적으로 가장 까다로운 규율이 지배하는 공항의 한쪽 구석에서도 일어난다(<그림 10>, <그림 11>)(Finland Times, 2014.8.18).

여기서 낯선 이들은 주방 창문에 늘어뜨린 빗줄과 바구니를 통해서 혹은 테라스 울타리를 넘어서 서로 마주치고 소통하면서 일상적 경계를 허문다.

이는 영토적 경계와 타자의 구분이 만들어내는 일상적 긴장감을 내재한 공공공간은 담아내지 못했던 비일상적·탈영역적 마주침이다. 레스토랑 데이 사례에서 그 경계와 구분선을 혼동시킨 역동적 공간 전유 행위는 도시공간의 종류를 막론하고 모든 도시민에게 열려 있는, 일종의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공공공간의 영역을 개척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진전을 이끌어낸 ‘축제적 전유’의 성과는 기존에 최소화된 영역으로 추방되고 배제되었던 타자들까지 공공공간의 주체로 포함시키고 공공성을 복원하는 데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나아가 축제적 전유는 공공과 비공공의 경계마저 재구성함으로써 새로운 대안적 도시공간을 구상할 실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5. 결론

공공공간에서 먹는 혹은 먹지 않는 행위는 종종 그 자체로 영향력 있는 사회운동이 되기도 한다. 최근 광화문 광장에서 먹지 않거나 먹는 행위를 통해 의견을 표출한 방식이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공간을 매개로 하는 다양한 사회 세력 간의 경합이 치열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한겨레》, 2014.8.27). 그 갈등이 공공공간의 수면 위로 극단적으로 표출되지 않더라도, 공공공간은 기본적으로 그를 권력화하는 세력과 이에 대한 대응적 움직임이 의해 끊임없이 매개되고 해체되며, 재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검토와 사례 연구를 통해 공공공간이 겉으로 내보이는 평화는 이미 여러 장치를 통해 부적절한 신체와 행위는 철저히 보이지 않는 것으로 여과시키고 남은 동질화된 공중을 내보임으로써 고안된 평화임을 확인하였다. 그곳에 존재할 수 있게 허용된 공중은 다수자로서 그 질서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이방인을 배제하며, 이에 가

시적인 또는 은근한 기호와 차별적 시선, 극단적인 경우 배타적 규제를 동원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공간에 작용하는 그런 매개된 질서를 해체하는 실천적 공간 전략으로서 레스토랑 데이 사례를 살펴보았다. 매개가 일시적으로 해체된 틈에서는 일상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타자들이 포착되었고 영토적 경계가 흐려진 공간은 낯선 이들의 마주침을 담아냈다. 레스토랑 데이에 헬싱키의 도시공간을 매개가 부재하는 마주침의 장으로 재구성한 것은 공간을 축제적으로 전유한 도시민들의 참여였다. 그간의 이론적, 실천적 논의들은 공공공간이 언제나 필연적으로 공공성을 구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복수의 정체성을 지닌 도시민들이 도시공간에서 능동적 주체로 행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해체와 재구성의 작업이 필요함을 밝혀왔다. 이 연구에서 레스토랑 데이 사례가 보여준 전유 행위는 해체 작업의 한 가능한 형태이다. 여기서 먹는 행위가 불러일으키는 축제적 분위기는 더 많은 공중을 공공공간으로 이끌었으며, 이들이 산발적으로 전유한 도시공간은 대안적 공공공간에 대한 상상을 효과적으로 가시화했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축제적 전유’가 일상적으로 규율하에 놓이게 되는 기존 공공공간을 해체하고 새롭게 재구성하는 한 실천적 공공공간 전략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축제적 전유 행위가 공공공간의 실천 논의에 주는 함의는 그것이 대안적 공공공간에 대한 상상을 구체화시키며, 상상을 넘어서는 이질적 신체와 행위까지도 담아냄으로써 공공성을 끊임없이 증폭시킨다는 점에 있다. 공공공간을 지속적인 공공성 확장의 과정에 올려놓는다는 점에서 레스토랑 데이는 일일 노점의 축제이지만, 이를 통해 재구성된 공공공간과 그곳에서의 움직임이 가시화한 대안적 공간의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축제적 전유의 실험을 시도한 티모 산탈라는 그 성과를 “도시가 사람들에게 속한다는 새로운 감각을 불러일으킨 것”이라 자평한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곳을 바꿀 권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감각”이고 또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는

자각”이기도 하다.

축제적 전유는 순간적 유희로 휘발되지 않으며 도시민으로 하여금 더 포괄적이고 민주적인 공공공간을 점진적으로 상상케 하는 촉매로 기능한다. 이것이 불러일으키는 대안적 공간에 대한 상상은 최근 긴장감이 고조되는 한국의 광장과 공존의 도시공간을 모색하는 노력에서도 발현될 수 있다. 시선과 법제도, 기호를 동원한 도시공간의 권력화와 공적 영역의 축소는 핀란드 헬싱키 특유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이 신자유주의에서의 강력한 사유화의 추세이건 공동체의 축소이건 안팎으로 확장되는 도시화이건, 최근 여러 도시들에서의 침식적인 공간 기획은 공공공간의 축소와 타자의 추방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질적 도시민이 점차 최소의 공간으로 내몰리고 공공공간에서의 삶이 규율에 종속되어가는 틈새에서 대안적 공공공간을 가시화한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점은 고무적이며, 이 움직임이 유사한 과정을 겪고 있는 한국 공공공간의 정치에 대해 지니는 실천적 함의는 적지 않다. 공공공간을 소통과 마주침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공간적 실천 행위임을 자각하고 대안을 상상함으로써 우리는 공공공간을 더 넓은 해체와 재구성의 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원고접수일: 2015년 2월 25일

심사완료일: 2015년 3월 5일

게재확정일: 2015년 3월 6일

최종원고접수일: 2015년 3월 21일

❖ Abstract

Rebuilding Public Space through Festive Appropriation:
A case study of ‘Restaurant Day’ in Finland

Han, Yoon-Ae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otentiality of ‘festive appropriation’ as a means of spatial practice for deconstructing and rebuilding public space. The studied areas of Helsinki, Finland represent ‘filtered’ public space where the supposedly proper body and behaviour are carefully selected while the others are constantly excluded. Among the arts of selection and exclusion, strict controls over street vending and eating in particular, show how public space and public life are densely mediated. ‘Restaurant Day’ first came as a grassroots action against the controls, mobilising one-day pop-up restaurants in mode of festivals. This paper reviews the literature on public space, publicity and how they are mediated through signs, images, regulations and surveillance and seeks to locate festive appropriation as a spatial strategy of deconstruction. Building on these, the study first provides a stark contrast between the usual, mediated public space of everyday Helsinki and the unusual, appropriated public space of Restaurant Day. This contrast reveals how the state, bureaucrats and individuals spatially project their rules on one side and marginalise the inappropriate on the other. Second, the study investigates how Restaurant Day temporarily overturns everyday order by enabling people to festively and simultaneously take part in the action. With the order overturned, the space for alternative identity and social relation emerges. Public space rebuilt on the restored publicity is the fruitful outcome of festive appropriation. In the end, the study reminds us that the promise of rebuilding public space is in the hands of the people and calls for the need for action.

참고문헌

- 김동완. 2014. 「‘날것’으로서 공공공간과 타자의 복원: 로열 페스티벌 홀을 사례로」. 《공간과 사회》, 178~209쪽.
- 김준호. 2011. 「공공공간에 대한 소수자의 권리를 위한 시론: 거리노숙인의 ‘도시에 대한 권리’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36, 35~65쪽.
- 르페브르, 앙리(Henri Lefebvre). 2011. 『공간의 생산』. 양영란 옮김. 서울: 에코리브르.
- 백옥인. 2008. 「촛불시위와 대중」. 《동향과전망》, 159~188쪽.
- 윤지환. 2011. 「도시공간의 생산과 전유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46.2, 233~256쪽.
- 황진태. 2011a. 「도시권의 측면에서 바라본 광장의 정치」. 《공간과 사회》, 35, 42~70쪽.
- _____. 2011b. 「2008년 촛불집회시위의 공간성에 관한 고찰」. 《경제와사회》, 262~289쪽.
- Akkila, Ilona. 2011. “Families Residing in Kallio—A Choice?” Diss.
- Arayici, Ali. 1998. “The Gypsy Minority in Europe—Some Considerations.”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pp. 253~262.
- Blackmar, E. 2006. “Appropriating ‘the Commons’: The Tragedy of Property Rights Discourse.” In Low, S. and Smith, N. *The Politics of Public Space*, New York: Routledge, pp. 49~80.
- Boyer, B. D. Helsinki Street Eats
- Brenner, Neil. 2013. “Open City or the Right to the City?—Demand for a Democratization of Urban Space.” *Topos: European Landscape Magazine*, 42.
- Crilly, Darrell. 1993. “Megastructures and Urban Change: Aesthetics, Ideology and Design.” *The Restless Urban Landscape*, pp. 127~164.
- Domosh, Mona and Joni Seager. 2011. *Putting Women in Place: Feminist Geographers Make Sense of the World*. Guilford press.
- Eliade, Mircea. *Patterns in Comparative Religion*. U of Nebraska Press.
- Harvey, David. 2006. “The political economy of public space.” *The politics of Public Space*, 34.
- _____. 2012. *Rebel Cities: from the Right to the City to the Urban Revolution*. Verso Books.
- Hartley, John. 1992. *The Politics of Pictures: The Creation of the Public in the Age of Popular Media*. Psychology Press.
- Hou, Jeffrey, ed. 2010. *Insurgent Public Space: Guerrilla Urbanism and the Remaking of*

- Contemporary Cities*. Routledge.
- Latham, Alan. 2003. “Research, Performance, and Doing Human Geography: Some Reflections on the Diary-Photograph, Diary-Interview Method.” *Environment and Planning A*, pp. 1993~2018.
- Lee, Seung-Ook, Sook-Jin Kim, and Joel Wainwright. 2010. “Mad Cow Militancy: Neoliberal Hegemony and Social Resistance in South Korea.” *Political Geography*, pp. 359~369.
- Lefebvre, Henri. *The Production of Space*, Blackwell: Oxford, Vol. 142.
- Low, Setha M. *On the Plaza: The Politics of Public Space and Culture*. University of Texas Press.
- Low, Setha, Dana Taplin, and Suzanne Scheld. 2005. “Rethinking Urban Parks.” *Public Space and Cultural Diversity*. The University of Texas Press. Austin, TX. USA.
- Mitchell, Don. 1995. “The End of Public Space? People’s Park, Definitions of the Public, and Democracy.”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85.1, pp. 108~133.
- _____. 2003. *The Right to the City: Social Justice and the Fight for Public Spac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Newman, Simon Peter. 2000. *Parades and the Politics of the Street: Festive Culture in the Early American Republic*.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Paunonen, Heikki, Jani Vuolteenaho, and Terhi Ainiala. 2009. “Industrial Urbanization, Working-Class Lads and Slang Toponyms in Early Twentieth-Century Helsinki.” *Urban History*, pp. 449~472.
- Sennett, R. 2000. “Reflections on the Public Realm.” In Bridge, G. and Watson, S. (Eds.) *A Companion to the City*, Oxford: Blackwell, pp. 380~387.
- Tani, Sirpa. 2001. “Bad Reputation—Bad Reality? The Intertwining and Contested Images of a Place.” *Fennia-International Journal of Geography*, pp.143~157.
- Young, Iris Marion. 1986. “The Ideal of Community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Social Theory and Practice*, pp. 1~26.
- 《한겨레》 2014년 8월 27일자. “‘목숨’ 건 단식 조롱하며 ‘폭식’? ‘인간의 탈쓰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53013.html.
- Forbes*. 2014년 8월 13일자. “The Restaurant Revolution Heading Your Way.” <http://www.forbes.com/sites/davidmacdougall/2014/08/13/the-restaurant-revolution-heading-your-way/>
- Helsinki Times*. 2013년 11월 14일자. “Trail of the unexpected: Helsinki’s Restaurant Day.” <http://www.independent.co.uk/travel/europe/trail-of-the-unexpected-helsinki-restau->

rant-day-8027447.html.

The Independent. 2012년 8월 10일자. “Trail of the unexpected: Helsinki’s Restaurant Day.”

<http://www.independent.co.uk/travel/europe/trail-of-the-unexpected-helsinki-restaurant-day-8027447.html>

Finland Times. 2014년 8월 18일자. “Restaurant Day observed at Helsinki Airport.”

<http://www.finlandtimes.fi/culture/2014/08/18/9318/Restaurant-Day-observed-at-Helsinki-Airport>

레스토랑 데이 홈페이지, www.restaurantday.org(최종 접속일: 2015.02.17)

EveryDaily, Newspaper for Everymancity, Spatial Design Talk 2009, <http://www.mastersofarts.fi/moa2010/images/stories/everydaily.pdf>(최종 접속일: 2015.02.10)

TED×Turku 영상 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OZIT8YHk16k>(최종 접속일: 2015.02.04)

사진 자료, <http://www.kasvitkaupunginvaatteen.fi/parks-esplanadi/>(최종 접속일: 2015.02.17)

사진 자료, <http://commons.wikimedia.org/wiki/>(최종 접속일: 2015.02.17)

지도 자료, <https://www.google.com/earth/>(최종 접속일: 2015.02.20)